

전북·화재 등 겨울철 해양사고 ↑… 대책 마련 절실

신안서 전복된 中선박 발견
지난달 여수 9톤 선박 화재
지난해 해양사고 피해 412명
해수부, 낚시어선 등 합동점검

최근 겨울철 기상악화 등으로 전남 해양서 전복과 화재 등 해양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관계 당국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6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58분께 신안 태도 서쪽 38km 해상에서 선박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지난달 29일 신안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된 중국 선박(200톤급)이 승선원을 태우지 않은 채 중국 항구

에서 표류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12시46분께 여수 대여자도 남쪽 7.4km 해상에서 1161톤급 준설회선 부선(바지선) A호의 선미 부분이 침수됐다. 해경은 현장에서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 A호에 탑승한 승선원 1명을 무사히 구조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7시6분께 여수 삼산면 문서섬 인근 해양 위 9.77톤급 B호(여수 선전)에서 불이 났다. 배에 홀로 타고 있던 선장 이모(46)씨는 구명뗏목을 타고 탈출, 주변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구조대를 급파, 소화수를 뿌려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같은 날 완도 어룡도 인근 바다에서는

5000톤급 모래운반선이 인근 무인도에 부딪혀 전복됐다. 완도해경은 배에 타고 있던 승선원 13명을 전원 구조, 초기 오염물질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신속히 방제했다. 배에는 적재유병커A90톤과 경유 30톤, 윤활유 2통가량이 적재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해양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해양사고 건수는 △2018년 2671건 △2019년 2971건 △2020년 3156건 △2021년 2720건 △2022년 2863건 등으로 2021년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사망 실종자 등 인명피해 역시 매년 이

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해양사고 인명피해는 △2018년 455명(사망 실종 102명·부상 353명) △2019년 547명(사망 실종 98명·부상 449명) △2020년 553명(사망 실종 126명·부상 427명) △2021년 512명(사망 실종 120명·부상 392명) △2022년 412명(사망 실종 99명·부상 313명) 등이 다.

겨울철 기상악화 등으로 어선 전복·침몰 사고가 잦다는 게 관계 당국의 분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부터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 시 어선의 조업제한을 확대하고 복원성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내년 설 연휴 동안 낚시어선 및 연안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늘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체 연안여객선과 사고위험해역을 운항하는 낚시어선 400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의 화재·기관손상 예방책으로는 고위험 어선에 LPG 안전밸브, 윤활유 등 화재 예방·정비용품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해양기상 악화로 인한 선박 전복, 침몰 등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며 “선박운항자 등 해양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주비·정성아 인턴기자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 사업 촉구 현수막 게재 ‘눈길’

무분별 민원에 해체공사 ‘차질’
예비입주자 ‘악성민원근절’ 게시
현산 “인력 낭비 공사지연 우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해체 공사가 시작된 이후 무분별한 민원이 쏟아지자 입주 예정자들이 공사 지연을 우려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최근 화정아이파크 해체 공사 현장 펜스와 안전통행로에 20여개의 현수막이 게시됐다.

현수막에는 ‘살 집을 잃은 우리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자다. 공사가 하루만 지연돼도 피가 마른다’, ‘악성민원에 전전긍긍하는 서구청의 소극행정 각성하라’, ‘반복, 악성민원은 안전한 공사를 방해합니다. 서구청은 강력한 대응으로 반복, 악성민원을 근절시켜 주세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게시자는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협의회와 공사 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금호하이빌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다.

지난 7월 해체 공사가 시작된 이후 주변 상인 등으로부터 민원이 빗발쳤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사 지연이 불가피해 지자 이들이 직접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현산)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와 빠른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입주자, 현장 주변 주민들께서 과도한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7월14일 화정아이파크 해체 공사 시작 이후부터 11월30일까지 약 5개월간 서구에 접수된 민원은 116건이다. 월별로는 △7월(14~31일) 7건 △8월 16건 △9월 25건 △10월 18건 △11월 50건으로 최근 대폭 늘었다.

서구 관계자는 “대부분 소음, 비산에 대한 민원으로 전화나 구두상으로 접수된 건을 합하면 더 많다”며 “11월에는 안전통행로를 설치하면서 관련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서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야 하고 현장



최근 화정아이파크 해체 공사 현장 펜스와 안전통행로에 악성민원이 공사를 방해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20여개가 게시됐다.

관리 직원은 이에 응대하기 위해 업무를 중단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게 현산 측의 설명이다.

현산 관계자는 “이는 서구청과 기업의 인력 낭비며 공사기간 지연으로 파장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공사가 지연돼 준공이 늦어지는 것은 입주예정자뿐만 아니라 현장 주변 주민, 상인은 물론 광주시

민 모두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일부 미합의 상인들의 악성 민원은 사회적인 비용 측면에서도 큰 손실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현산 측은 지난해 1월 7명의 사상자를 낸 붕괴 참사 이후 약 1년 뒤인 올해 2월 서구 등과 함께 상생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사고 피해자를 비롯 예비입주자, 인근 상인회 대부분과 보상 협의를 마쳤지만 일부 상인은 현재까지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

일부 미합의 상인들은 사고 현장 앞에 주차를 하거나 비산 먼지, 소음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강주비 기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